

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!
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
노동본부 보도자료

문의	김주영 의원실	연락처	02-784-5260	e-mail	gimpolovekgy@gmail.com
----	---------	-----	-------------	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〈성명서〉

**‘중대재해처벌법이 악법’이라는 노동부 장관 출신 대통령 후보
오늘도 두 명은 퇴근하지 못한 나라**

‘친노조=반기업’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 망언

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5일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으로 규정하고 “제가 결정권자가 될 때 반드시 이런 악법이 여러분을 더 이상 괴롭히지 못하도록 고치겠다”고 말했다.

지난해 82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나라의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 대통령 후보 발언으로 귀를 의심케 하는 망언이다.

김 후보의 주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취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실과도 동떨어진 발언이라는 점에서 개탄스럽다. 김 후보는 마치 중대재해처벌법이 중소기업을 어렵게 만드는 것으로 호도하지만 사실이 과연 그러한가.

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3년 동안 사망한 노동자는 101명이지만 이 법으로 경영책

임자가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단 5건에 불과하다. 김 후보가 강조하는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이 법으로 처벌된 사례도 없다.

무엇보다 친노조는 반기업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김 후보의 인식이 문제의 본질이다. 우리 사회 중대재해 대부분이 추락, 끼임, 깔림, 화재 등 후진국형 사고인데 이를 줄이지 않고 어떻게 선진국이 가능하며 노동생산성을 올릴 수 있겠는가!

역시 김문수는 윤석열이었다. 집권 내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쳤던 윤 전 대통령과 김문수가 무엇이 다른가?

이재명 후보는 노동과 함께 하는 성장. 통합을 선도하는 노동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.<끝>